

독거노인 급증... 5년간 공공임대 5만호 공급

2022년 171만명 예상...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도 논의 후진학 지원기업 공공임대 입주 가산점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년간 고령자용 공공임대 주택 총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40만5000명인 독거노인은 2022년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주거와 돌봄 기능이 융합된 공공 실버주택을 확대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및 식생활관리 서비스 개발 등을 강화해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독거노인이 사회적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국

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5년간 총 5만호의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연금형 매입 임대제도 시범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해 장애인·초기·은둔 등 독거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노인 공공후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건강상태가 취약해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자

구에 안전서비스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여가·문화생활 기회, IT 활용 인프라 및 교육 등도 확충해 자립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성 독거노인이 여성 독거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취약한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년일자리 대책중 하나로 고졸 취업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학습 병행제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취업 후

에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고, 고교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이 취업 이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임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고현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우리사회의 단순한 성장경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을 통해 고졸 취업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인소득 3만불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따라 '사회적

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28.6% 증가할 때 삶의 질 지수는 11.8%만 증가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추진 중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수립과 사회적 책임 및 목표 수립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정책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대상인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사회정책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개편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전략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양적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중 사회적 정책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전북농협·백운농협 자금지원 양해각서 체결

전북농협은 백운농협과 자금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진안 백운농협과 성수농협 간 합병 등기가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전북농협은 백운농협의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순자본비율 7% 부족액에 대한 19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실에 대해서는 추가정산(Put-Back Option)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농협 유재도 본부장은 "농가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농·축협의 경영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선제적 자원을 합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합병농협에 대해 자금지원 및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건설 팀 실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운농협 신용민 조합장은 "중앙회 자금지원 수혜익을 농가실익 증대를 위한 대체 작물 보급 및 시설투자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며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이룰 강소농협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동취재반

향토기업 다고내푸드, 지역민과 소통 강화

창립 15주년 맞아

익산지역 향토기업인 (주)다고내푸드가 27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해온 향토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겠다는 김강용 대표의 지론과 기업운영 철학을 담아 마련됐다.

이날 석암동에 위치한 다고내푸드에서는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함께 신동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KCN금강방송 가요열전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다고내푸드는 신동리 주민들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시민 20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협력업체와 장기근속 사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2부 가요열전에서는 초대가수 공연과 주민들의 노래자랑이 이어졌다.

이 같은 다고내푸드의 지역에 대한 사랑 실천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이 업체 직원들은 매달 급여에서

익산지역 향토기업인 (주)다고내푸드가 27일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일정금액을 적립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하고 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향토기업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다고내푸드는 소외층을 위한 나눔 활동은 물론 마루산·용화산 환경정화, 군부대 위문 등 활동 범위를 광범위하다.

나눔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새내 탁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공헌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다고내푸드가 지역을 위한 나눔

활동에 주력하는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김강용 대표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항상 상 주위를 둘러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스제조 전문기업인 (주)다고내푸드는 다년간의 전문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웰빙 트렌드에 맞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남북 원-원 인프라 건설 앞장"

건설협회, 남북정상회담 계기 건설통일포럼 구성 내달 회의

철도·도로·항만 등 구축
도시개발·경제특구 조성 등 실질적인 계획·실행방안 도출

대한건설협회가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이 원-원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27일 "국내 200만 건설인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초석이 될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평화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며 "분단 이후 70년간 축적한 대한민국의 인프라 건설과 주택 건설, 해외 건설 노하우를 살려 남북한이 원-원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과 국토 종합개발에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계는 남북 두 정상이 회담에서 남북간 철도를 잇자는 얘기를 주고받은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남북경협, 나아가 통일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큰 산업"이라며 "남한의 고속성장세를 계기로 경부고속도로, 각종 댐, 산업단지 건설이었던 점을 상기할 때 낙후된 북한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발맞춰 건설업계, 연구기관, 공기업, 학계, 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통일포럼'을 구성하고 다음달 8일 키포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북한을 잇는 철도 및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발전시설 확충, 도시개발, 관광단지 개발, 경제특구 조성 등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농기주부모임 고창연합 한마음대회

농기주부모임 고창군연합회(회장 신미애)와 농협은 27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고창군 박우정군수를 비롯한 기관, 사회, 농업관련 단체장, 62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주부모임 고창군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농기주부모임 고창군연합회는 1993년 고수농협 농기주부모임 조직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고창군 관내 14개 읍·면에 조직을 완료하고 현재 6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농협의 대표적 여성농업인 조직이다.

신미애 연합회장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